

3건(6%)순으로 나타났고 산란계 19건(33%)보다 육용계에서 39건(67%)의 높은 발생빈도를 나타냈다.

8. 주령별 발생빈도는 육용계에서 2주령(38.4%)과 5주령(25.6%)에 다발하였고, 산란계에서는 10주령~30주령 사이에 58%의 발생률을 나타내어 산란초기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9. 타 질병과 가금티푸스와의 복합감염 증례는 58건중 5건(9%)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및 폐사율이 단독 감염시 보다 높게 나타났다.

10. 58개 가금티푸스 분리균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검사에서 80% 이상의 높은 감수성을 보이는 항생제는 6종-Trimethoprim/Sulfamethoxazole(93%), Cefoxitin(88%), Gentamicin(86%), Chloramphenicol(84%), Ampicillin(83%), Neomycine(81%)순으로 나타났고, 70~50%의 감수성을 보이는 항생제는 4종-Kanamycin(74%), Cephalothin(71%), Norfloxacin(67%), Tetracycline(55%)로 나타났으며, Colistion(38%), Streptomycin(29%), Nalidixic acid(5%), Novobiocin(0%) 등의 4종은 50% 이하의 매우 낮은 감수성을 나타냈다.

4. 닭뉴캐슬병 방역 시범사업 사례발표

최경묵 · 고평춘 · 김국주 · 우종태 · 이성식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닭뉴캐슬병은 양계산업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부에서는 '01년부터 '05년까지 뉴캐슬병 근절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뉴캐슬병 등 방역관리 강화대책의 전국적 실시에 앞서 문제점 등을 사전점검·보완하고자 '01년 12월부터 '02년 1월까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도계장에 출하되는 육계 2,500마리의 평균 HI항체가는 3.3(log2)이었고, ELISA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률이 70.4%로 나타났다.

2. ELISA법과 HI법을 비교 실험한 결과 HI항체가 0(log2)인 39마리에 대해 ELISA법으로 검사한 결과 21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되었고, HI항체가 1~2(log2)인 210마리의 경우에는 양성이 135마리, HI항체가 3(log2)이상인 2,251마리에 대하여는 양성이 1,597마리로 각각 나타났다.

3. 육계농장에서 사육중인 육계를 무작위 채취하여 1일령부터 35일령까지 주단위로 HI항체가를 검사한 결과, 1일령에서 HI항체가 6.4(log2)인 농장에서 2회 음수 예방접종한 경우 35일령에는 HI항체가 3.1(log2)로 나타났으며, 1일령의 HI항체가 7.3(log2)인 농장에서 1회 음수 예방접종한 경우 35일령의 HI항체가는 3.5(log2)로 나타났다.

4. 도계 신청시 예방접종증명서 첨부 등 뉴캐슬병 방역강화대책을 추진한 결과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충분한 사전 홍보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부화장 및 중추사육농장의 예방접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화장의 경우 자동분무기 설치 및 가동은 양호하였으나, 현재 공급되는 예방약의 확대(10%이상)를 요구하였고, 중추농장에서는 ND·IB혼합예방약을 선호하였다.